

제주문화가 이슈&현장 박물관·미술관 주간 제주는?

'박물관의 섬' 이면 뭐하나... 박물관 알리기 무관심

5월 18일 세계박물관의 날 주간행사 참여 제주 12곳 미술관 등 공립 다수 빠져 서울시는 박물관 주간 별도 순환 셔틀버스 운영 등 적극

에 비해 박물관·미술관이 가장 많다. 5월 현재 제주 지역 등록박물관은 사설을 합쳐 81곳에 이른다. 이 중에서 국공립박물관은 12곳, 공립미술관은 7곳으로 파악됐다.

이들 박물관·미술관은 제주의 대표적 문화기반시설로 꼽히지만 '열린 박물관'으로 관람객들과 만나려는 노력은 양적 성장에 비해 더딘 편이다. 도내 일부 공립박물관·미술관들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2019 박물관·미술관 주간 행사의 무풍지대라는 점이 한 예다.

한국박물관협회와 국립중앙박물관이 주최·주관하고 문화부가 후원하는 이번 박물관·미술관 주간에는 전국 435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할 수 있고 기관에 따라 문화상품 할인,

연장 개관도 이루어진다. 전년보다 3배 이상 참여 기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서는 전시 분야에서 국립제주박물관, 소망기념관, 4·3평화기념관, 제주추사관, 제주항일기념관, 항몽유적지 등 국·공·사립 12곳이 참여했다. 사설 미술관으로는 포토갤러리 자연사랑, 왓슨미술관이 입장료를 할인하고 있다. 국·공립 참여 기관 대부분이 평소 무료 입장이 가능해 주간 행사 참여가 관람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은 한계다. 하지만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계기로 시설 관심도를 높이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타 지자체 '해설사와 떠나는 나들이' 이번 박물관·미술관 주간에서는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김창열미술관,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 등 적은 예산지만 관람료를 받

는 공립미술관 명단은 찾아볼 수 없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감귤박물관, 돌문화공원, 해녀박물관 등 공립박물관도 빠져있다.

도내 미술계의 한 관계자는 "박물관·미술관 주간이 운영된다는 소식에 자료를 찾아봤더니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미술관들이 보이지 않더라"면서 "자연스럽게 공간을 홍보하고 방문객들도 늘릴 수 있는 기회인데 미술관에서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세계박물관의 날을 맞아 별도로 '2019서울시 박물관 주간'을 정했다. 5월 14~19일 해설사와 함께하는 박물관·미술관 나들이, 걸어서 찾아가는 박물관·미술관 프로그램 등을 가동하고 주요 박물관을 순환하는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전선화기자

보물 '예산 김정희 종가유물' 첫 나들이

제주추사관 오늘부터 특별전 2006년 부국문화재단 기증 신해년책력 추사 친필 등 보물 547-2호 지정된 26점



보물로 지정된 추사 김정희(사진) 종가유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나용해) 제주추사관은 이달 14일부터 7월 28일까지 '보물 547-2호 예산 김정희 종가유물 특별 기획전'을 펼친다.

제주추사관 개관 9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전시에는 모두 합쳐 26점이 나온다. 이 자료는 제주추사관 개관을 이끈 결정적 계기가 된 부국문화재단(이사장 남상규) 기증 유물 중 일부다. 당시 기증 유물은 추사의 증조부인 월성위 김한신 관련 유물, '신해년책력'과 그 안에 붙여진 추사의 글씨, 추사와 교류한 인물편지로 나뉜다. 이 중에서 김한신과 화순옹주 관련 유물 10점, '신해년책력'과 그 속에 붙여진 유묵 15점이 2006년 보물 '예산 김정희 종가유물 일괄'로 지정됐다. 예산 김정희 종가유물을 보관하고 서예 연구에 가치있는 추사의 필적을 보존한다는 취지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다. 전선화기자 sunny@ihalla.com

특별전에는 김한신이 직접 쓴 '교사시말' 등 지난해 보존처리를 완료한 5점의 진품이 첫 나들이에 나선다. '신해년책력' 속에 붙여져 있어 공개된 적이 없는 추사 친필 편지도 처음 선보인다. 이와함께 충남 예산군 신암면에 있는 추사 고택과 추사묘역 등 사진자료를 전시한다. 특별전과 연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나용해 본부장은 "특별전이 끝나면 충남 예산군 추사기념관, 경기도 과천시 추사박물관과 상호 교류 전시의 필적을 보존한다는 취지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다."

아이들 눈높이로 풀어낸 5월 광주

4·3평화재단 내달 10일까지 홍성담의 5·18그림책 원화전

5·18민주화운동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풀어낸 그림책 원화가 제주를 찾았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과 5·18기념재단(이사장 이철우), 평화로움은집, 평화로움은책이 준비한 홍성담 그림책 '운동화 비행기' 원화전이다.

6월 10일까지 4·3평화기념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

는 '운동화 비행기'에 실린 16점의 원화가 걸렸다. 저수지와 뒷산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갑작스런 총격에 목숨을 잃은 두 소년의 이야기를 모티프로 민주주의를 원했던 사람들의 염원과 사건 현장을 담아냈다.

홍성담 작가는 5·18민주화운동을 직접 겪은 인물이다. 그동안 광주 오월 연작 판화 '새벽', 국가폭력에 관한 연작 그림 '유신의 초상', 세월호 연작 그림 '들숨 날숨' 등을 발표해왔다. 주최 측은 원화전에 더해 '5·18, 위대한 유산' 사진 28점, 팸



홍성담의 5·18 그림책 '운동화 비행기' 원화.

업북, 그림책 본문 내용을 플래시에 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영상을 준비했다. '운동화 비행기' 모형을 통해 관

람객들이 원화 주인공인 '새날이'가 되어 보는 체험도 할 수 있다. 문의 064)723-4355. 전선화기자

예술로 펼친 4·3진상규명 운동의 역사

제주민예총 '...타임라인전' '순이삼촌' 이후 현재까지 4·3예술운동 시대별 사료

4·3예술운동의 지난한 역사를 보여주는 자료전이 열리고 있다. 제주민예총(이사장 강정호)이 내달 6일까지 포시즌 민 제주(제주시 관덕로6길 17 2층)에서 개최하는 '4·3기억 투쟁예술 타임라인전'이다.

제26회 4·3문화예술축전 사업인 '4·3예술 아카이브 프로젝트'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1978년 발표된 현신인 제주도여성회관 50주년을 기념한 특별상영회를 세 차례 이어간다. 첫 상영작은 퍼시 에들론 감독의 '바그다드 카페' (1987)로 이달 28일 오후 7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볼 수 있다. '다시 보고 싶은 여성영화'를 심층해 선정된 작품이다. 문의 064)756-7261.

록사자들이 전시되고 있다. 강요배 작가의 '초록'을 모티프로 전시 공간을 꾸몄다.

두 번째 마당은 1978년 '순이삼촌'에서 1987년 6월 항쟁을 겪고 본격적인 4·3진상규명 운동과 더불어 진행된 4·3예술 운동의 시대별 사료를 담았다. 특히 1994년 제주민예총 창립 이후 펼쳐졌던 문화예술 행사의 흐름이 정리되어 있다.

전시 기간 중에는 개인이나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4·3예술관련 자료 수집도 이루어진다. 5월 22일 오후 5시에는 '4·3예술 1세대를 만나다', 6월 4일 오후 5시(예정)에는 '4·3예술 기억과 기록'을 주제로 좌담회가 잇따른다. 이번에 수집되고 정리된 자료는 4·3예술아카이브 자료집 발간과 4·3예술 홈페이지 구축에 활용된다.

개막 행사는 5월 15일 오후 5시에 열린다. 문의 010-7128-0610. 전선화기자

문화가 쏙지

플로드아트홀 기획 공연

플로드아트홀의 5월 기획공연은 어쿠스틱트리오 '스프링플라워'의 무대로 꾸민다.

스프링플라워는 보컬(김나형), 피아노(김세운), 퍼커션(유성재)으로 구성됐다. 이달 18일 오후 8시 공연에서는 재즈, 포크, 보사노바 음악을 기반으로 만든 창작곡과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 조니 미첼의 명곡을 편곡해 선사한다. 문의 010-3361-8919.

두근두근시어터 가족극

극단 '두근두근시어터'가 가정의 달을 맞아 창작극 '할머니의 이야기치마' (장정인 작, 성민철 연출)을 공연하고 있다.

이 작품은 제주 여신 설문대의 이미지에 돌맹이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환경교육 인형극이다. 5월 19일까지 화·금요일 오전 10시30분(사전예약), 토요일 오후 2시와 4시, 일요일 오후 2시. 문의 070-8610-7857.

성안교회서 가족뮤지컬

CTS제주방송(지사장 오동환)이 주최하는 제5회 함께하는 음악회가 이달 18일 오후 4시 제주시 아라동 제주성안교회(담임목사 류정길)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에는 주인공인 주니가 창조의 비밀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을 그린 가족뮤지컬 '그의 나라를 찾아서'가 공연된다. 관람료 무료. 문의 064)724-9191.

다시보고 싶은 여성영화

제주여민회가 제주여성영화제 20주년과 제주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전신인 제주도여성회관 50주년을 기념한 특별상영회를 세 차례 이어간다.

첫 상영작은 퍼시 에들론 감독의 '바그다드 카페' (1987)로 이달 28일 오후 7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볼 수 있다. '다시 보고 싶은 여성영화'를 심층해 선정된 작품이다. 문의 064)756-7261.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1급~6급)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 보청기 가격 | 차상위계층 | 일반 |
|-------------------------|---------------------------|--------------------------------|
|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 본인부담금 0원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 본인부담금 131,000원 (90% 건강보험공단 지원) |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보청기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로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가까이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755.1005

제주시청
CGV
광양사거리